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연계

익산시, 고령화 대비한 치매안심센터 설치 키로

익산시는 모현동에 건립될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3층에 2019년 말까지 규모 900㎡의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익산시는 모현동에 건립될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3층에 2019년 말까지 규모 900㎡의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 국민생활관 2층에서 운영하는 치매상담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보건소장을 센터장으로 하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협력의사 등 총 10명의 치매 전문 인력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최근 인구고령화와 치매인구의 증가로 치매가 사회 전체의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치매로 인한 고통을 정부차원에서 분담하는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설치된다.

익산시는 총 사업비 24억원(기금 9억6천, 도비 7천2백, 시비 13억6천8백)을 들여 새롭게 들어서는 다목적체육관 및 인근에 있는 노인복지관과 연계하여 운동시설부문(노인체조실, 건강증진실), 교육시설부문(쉼터, 상담실), 사무관리부문(사무실, 가족카페) 등을 갖춘 치매안심센터를 마련하게 된다.

치매안심센터가 정식 개소되는 2019년 말이 되면 치매에 대한 선별검사와 진단검사, 저소득층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가족교실과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다목적체육관과 연계한 다양한 노인운동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며, 노인복지관과 연계한 노인 보건·복지 통합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익산시보건소(소장 김재광)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노인 건강증진 및 치매 사회적비용 경감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치매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익산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기자

김영배 예비후보 "반칙과 특권 없는 익산 만들겠다"

23일 전국 각지에서 故노무현 대통령 9주기 추모식이 열린 가운데,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장 예비후보(김 후보)는 반칙과 특권 없는 익산시정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김 후보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기득권의 갑질이 여전한 현실이기에 반칙과 특권에 맞섰던 노무현 정신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시민들과의 진솔한 소통을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익산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에 맞춰 시장이 직접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관행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동안 관행으로 치부되었던 낡은 질서와 악습을 없애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시민청원제를 도입해 시민 다수의 청원이 있으면 시장을 포함해 책임 있는 담당자가 설명하도록 하고, 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등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킨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은 소통과 혁신"이라며 "문재인처럼, 노무현처럼 일해서 익산시를 사람 사는 세상,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 산업단지 악취시설 점검

익산시는 23일 익산 제2산업단지(팔봉동)에 위치한 악취배출신고대상 사업장을 방문해 악취 배출 및 시설개선 현황을 점검하는 현장 행정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행정은 지난해 익산시 악취 민원의 30%(56건)를 차지하고 있는 악취배출사업장의 악취 발생 현황을 점검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 방지시설의 설치 및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주요 악취발생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이다.

시는 지난해 익산 제1·2산단 신고대상 사업장 6개소에 대해 악취 시설개선 보조금 1억을 지원하였으며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악취배출사업장의 자체 시설개선 투자를 유도하여 2017년 K사를 포함한 16개소에서 50억원을 투자하여 시설개선을 완료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정화조 청소 수수료 지원

익산시는 저소득 취약계층 및 다자녀 가구 등에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의 세대이며 연간 1만8,000원의 수수료를 지원해 2016년부터 매년 100가구정도가 지원을 신청하여 감면혜택을 받았다.

개인정화조는 제때 청소하지 않을 경우 악취가 발생하고 내부에 퇴적물이 쌓여 하천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6.13 지방선거 판세분석 - 군산시 광역의원 제2선거구

전직 시의원 출신의 후보 대결

양용호 예비후보

김종식 예비후보

다가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산시 광역의원 제2선거구는 전직 시의원 출신의 후보 대결로 결정돼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개정·성산·나포·임피·서수·대야면, 조촌·경암·구암·개정동 등을 아우르는 제2선거구는 현역인 바른미래당 소속 양용호(70) 의원이 일찌감치 재선 출사표를 던져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로 낙점된 김종식(65) 전 시의원이 새롭게 도전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 이번 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라는 호남의 맹주를 가리는 대결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 것과 함께 정당 장악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현직 바른미래당 양 의원의 아성에 지나 대선 승리의 바람을 타고 선전하고 있는 김 전 시의원의 도전이라 지역여론은 흥미롭다는 반응이다.

먼저 재선 도전을 선언하고 지난 3월 16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양 후보는 개정면을 읍면 지역과 경암, 조촌동 등 동군산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서고 있다.

다음으로 4선의원이며 6대후반기 부의장직을 수행한 군산시의원 출신인 김종식 후보도 지난 3월 2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기존의 경암, 조촌, 구암동을 중심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양용호 후보는 "풀뿌리 지역민주주의 근간인 시의원을 거쳐 광역의원에 이르기까지 지역 농업과 경제 살리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상황과 함께 쉽지 않은 선거지만 그동안 저를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의 관심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루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이어 김종식 후보는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광역의원 선거에 출마를 결심했다"며 "경선을 통해 최종 낙점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써 당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대규모 행사 참여 명품 관광도시 홍보 주력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참가 시간여행 플래시몹 등 펼쳐

명품 관광 도시 조성으로 도약을 꿈꾸는 군산시가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대규모 행사에 참여해 지역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24일부터 26일까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제14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에 참가해 시간여행축제를 비롯한 군산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박람회에 참가해 오는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시간여행마을 일원에서 열리는 시간여행축제의 홍보활동을 위해 초등학생으로 구성된 시간여행축제 플래시몹 서포터즈도 함께 참여해 시간여행축제를 홍보하는 공연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근대복장 체험부스를 운영해 청소년들에게 '근대로의 시간여행'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근대복장을 입고 총 5군데의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 오는 미션을 수행하면 사진을 무료로 인화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성우 관광진흥과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군산의 대표축제인 시간여행축제와 천혜의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이벤트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명품 관광도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올해도 많은 관광객들이 군산의 명소를 방문해 최고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군산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약 15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청소년 축제로, 미래존과 진로존, 행복존, 창의존, 안전존 등 5개의 주제를 포함해 총 170여개의 부스가 운영된다.

/군산=김정훈기자

익산시, 주요사업 추진상황 현장점검

익산시는 23일부터 9일 동안 관내 20개 사업장을 방문하여 주요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현장 점검은 주로 시민들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해위험지구 및 상습침수지역, 악취 관련 사업장 등으로 시는 이번 일정동안 사업 추진 부서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2/4분기 주요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하반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첫날에는 악취 관리 상황 점검을 위해 국도화학과 LG화학을 차례로 방문하여 관련 과장으로부터 악취 저감 노력과 애로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장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밖에도 남은 일정동안 주얼리단지 임대공장 건립사업, 함열농공단지 조성사업, 익산국가산단 혁신사업 등의 경제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장을 점검하고 금마축구공원·팔봉 실내체육관·익산 야구장·원광대 체육관을 방문하여 전국체전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김철모 익산시장 권한대행은 "현장 방문 실시를 통해 미진한 사업이 없는지 파악하고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하반기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주요 사업 추진이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